

##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변복수<sup>†</sup>

박승민

숭실대학교

본 연구는 재혼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자녀들의 경험과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혼 가정에서 생활한 만 20~30세 이하의 성인 자녀 15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Strauss와 Corbin(1998/2003)이 제시한 근거이론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범주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80개의 개념으로부터 77개의 하위 범주와 2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경험한 중심현상은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의 핵심 범주는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으로부터 자신을 재정립해 나감'이며, 그들은 부정, 타협, 시도, 수용 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적응해 나갔다. 셋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에게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버팀목, 종교의 힘, 개인 내적 변인이 적응 과정에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고, 재혼 준비 과정에서의 소외,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과 비난의 메시지, 사회적 편견, 잦은 양육자 변화, 새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적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재혼 가정, 재혼 가정 성인 자녀, 적응 과정, 근거이론

\* 이 연구는 변복수(2014년 8월, 지도교수: 박승민)의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로서, 2014년 한국 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변복수,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 010-2028-0072, E-mail : bomhye@hanmail.net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서구화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양식, 그리고 가족 제도에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서구의 가치관과 문화의 유입은 전통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가족 제도는 가부장적인 대가족 중심 체계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체계로 변화되고, 여성의 학력과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전통적 가장의 권위는 점차 사라지며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195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평균 조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5).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혼율 증가가 재혼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재혼 현황’에 의하면 1982년에 남자 26.4천 건, 여자는 17.2천 건, 1994년에 남자 36.3천 건, 여자는 35.6천 건, 그리고 2012년에 남자 51.1천 건, 여자는 56.5천 건으로 지난 30년간 재혼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30년 전 대비 남성의 재혼 증가율은 93.5%인 반면 여성의 재혼 증가율은 227.6%로 남성보다 여성의 재혼율이 훨씬 높았으며, 이혼 후 재혼이 전체 재혼의 92%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13). 이혼 후 홀로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형태로써 재혼을 선택하므로 높은 이혼율로 말미암은 재혼율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진다.

재혼 가정은 초혼 가정에 비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위험 요인이 있다. 재혼 가정은 가족생활주기와 개인생활주기의 불일치, 계자녀와 비동거 친부모의 존재, 그리고 복잡한 친족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해 구조적

로 취약하다(김연옥, 2004; 김효순, 엄명용, 2007). 또한 재혼 가정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경험이 부정적 가족 전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반면, 안정성은 취약하여 다시 가족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Gonzales, 2009; Gosselin & David, 2007). 따라서 재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재혼을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로 인식한다(Portnoy, 2006). 재혼 가정은 이런 구조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가족 형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다. 재혼 당사자인 부모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재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한 자녀들은 재혼 가정이란 새로운 환경에 대해 낯설과 두려움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그들은 새 가족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부모들과는 다른 혼란과 상실감, 심적 고통 등을 호소한다(김효순, 2007; 임춘희, 2006; Dunn, O'Connor, & Cheng, 2005). 재혼 가정 자녀가 되기까지 상실과 좌절을 경험한 자녀들의 관계와 부적응의 문제들은 점차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재혼 가정 자녀의 적응은 부모의 재혼 적응 못지않게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재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는 주로 재혼 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해 연구되었다(고은영, 서영석, 2012; 김효순, 2006; 김효순, 2007; 김효순, 하춘광, 2011; 송순, 2004). 또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계부모와의 관계 형성(김영신, 2009)과 재혼 가족 아동의 심리(손병덕, 2009), 부모의 재혼에 대한 자신의 의사 반영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윤주애, 2002), 재혼 가정 자녀들이 적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지승희, 오혜영, 이현숙, 2012), 재혼 가족의 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김미옥, 천성문, 2014)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도 재혼 가족의 적응 문제(Mahoney, 2006), 부모의 역할과 계자녀의 양육과 훈육에 대한 문제(Coleman, Fine, Ganong, Downs, & Pauk, 2001; Coleman, Ganong, & Fine, 2000), 재혼 가족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과 비행 문제(Anderson & Greene, 2013), 재혼 가족 청소년의 친부모 관계와 양육 등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Cartwright, & Seymour, 2002; Nicholson, Phillips, Peterson, & Battistutta, 2008)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족 문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계적 직계 가족 제도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 하였다(장승심, 2012). 이런 가족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강조하는 ‘내 가족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것의 경계가 분명하여 가족 내의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김혜영, 2006).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개인적 가치가 우세한 서구 가족 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 규범이 점점 해체되어가며 가족 문화가 변해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백진아, 2009). 따라서,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재한 현재의 가족 문화 속에서 부모의 재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전의 재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려는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므로(최규련, 2011), 이런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재혼 가정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재혼 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경험하는 새 부모와의 관계, 심리·사회적 적응, 스트레스 요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 역할의 중요성, 의사소통과 적응 등에 대해 다루었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몇 개 변인을 중심으로 그것들의 영향이나 상관을 살펴본 양적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부모의 재혼과 관련된 자녀들의 적응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되는 과정이므로 청소년 자녀의 적응 결과를 성인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조명해 봄으로써 그들이 변화된 삶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들과 가족 관계가 성인이 된 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새 삶을 적응해나가는데 도움이 된 요인들을 심도있게 탐색하는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재혼 가정 자녀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과 적응 과정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재혼 가정 자녀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및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들의 관점에서 부모 재혼과 관련하여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재혼 가정 자녀로서 생활해 본 과거 경험과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거의 다

루지 않은 재혼 가정의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이 성장해온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자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혼 가정 자녀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며 적응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서 도움 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 근거이론 접근 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재혼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자녀들의 경험의 의미, 다양한 조건, 재혼 가정에서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귀납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경험적 자료로부터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와 그 과정의 결합을 통해 이론 혹은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백은정, 유영권, 2004). 둘째, 재혼 가정에서 ‘비존재감으로 인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재정립해 나감’은 가족문화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고,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징적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므로(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8)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을 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부모 재혼 후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 시 재혼 가정 자녀들을 위한 개입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혼 가정의 성인 자녀들은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경험한 중심현상은 무엇인가?

둘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은 재혼 가정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셋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방 법

###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sup>1)</sup>에서 홍보 혹은 구인란에 연구 목적과 참여 대상자 범위를 소개한 후 3~4차례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가 또 다른 참여자를 소개해 주거나, 연구자가 직접 주변에 연구 목적과 참여 대상자 범위를 설명한 후 소개받은 경우가 포함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에게 먼저 메일로 연구 목적과 취지, 그리고 면접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연구자가 참여자를 직접 만난 뒤, 다시 한 번 연구자가 이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한 자들을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

1) [www.simriya.kr](http://www.simriya.kr), [www.nudasim.com](http://www.nudasim.com), [www.bokji.net](http://www.bokji.net),  
[www.isori.net](http://www.isori.net)

표 1. 참여 대상자

참여자	성별	나이	직업	결혼 유무	이혼 당시 연령	동거부모 형태	재혼 당시 연령	재혼 기간
참여자 1	남	25세	대학생	미혼	7세	부	10세	15년
참여자 2	여	30세	직장인	미혼	9세	모	13세	17년
참여자 3	여	24세	직장인	기혼	3세	부	6세	6년
참여자 4	여	29세	자영업	미혼	15세	모	21세	8년
참여자 5	여	27세	대학생	미혼	9세	부	10세	17년
참여자 6	여	27세	직장인	미혼	16세	모	22세	6년
참여자 7	여	29세	직장인	기혼	18세	모	24세	6년
참여자 8	남	24세	대학생	미혼	3세	모	11세	13년
참여자 9	여	23세	대학원생	미혼	13세	모	13세	3년
참여자 10	여	25세	대학생	미혼	15세	부	24세	2년
참여자 11	여	20세	대학생	미혼	12세	부	15세	6년
참여자 12	여	25세	대학원생	미혼	11세	부	17세	9년
참여자 13	여	23세	대학생	미혼	3세	부	9세	15년
참여자 14	여	20세	대학생	미혼	6세	모	8세	5년
참여자 15	여	23세	대학생	미혼	17세	부	19세	5년

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5명으로 참여자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 재혼 가정에서 만 1년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의 연령 분포는 20~30세로 평균연령은 24.9세이다. 성별 분포는 여자 13명, 남자 2명이고, 결혼 여부는 미혼 13명, 기혼 2명이다. 현재 직업은 대학생이 8명, 대학원생 2명, 직장인 및 자영업인 5명이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 당시 참여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부모 이혼 당시 연령은 학령전기(1~7세)가 5명, 학령기(8~13세)가 5명, 청소년기(14~19세)가 5명이었고, 부모 재혼 당시 연령은 학령전기(1~7세) 1명, 학령기(8~13세)

7명, 청소년기(14~19세)가 3명, 성인기(20세 이상) 4명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재혼 후 주 양육자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주 양육자인 경우 8명,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7명이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경우 2명,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소개한 경우 3명,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모집한 경우 2명, 인터넷상에서 모집한 경우가 8명이다.

####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자녀와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 가운데 가장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1명을 2012년 12월 심층 면접하여 시범 연구 하였으며, 이 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연구의 윤곽을 이해한 후 연구 질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그 후 1차 면접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진행되었고, 2차 면접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 후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이나 1차 자료 분석 시 발견된 부족한 내용이나 확인된 범주들을 계속 탐구하기 위한 내용을 구조적인 질문지를 만들어 진행하였다.

면접 장소와 시간은 참여자와 합의하여 선정하였으며, 면접 내용의 민감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 주로 연구자가 있는 학교의 연구실이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 전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할 것과 모든 자료의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본 면접 내용이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에 대해 약속하였다. 또한 면접 진행 과정이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에 관련된 어떤 사항도 연구자에게 말하거나 요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를 위해 면접 내용은 녹음되며 녹음된 내용과 녹음을 전사한 내용은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폐기됨을 전달하였다. 연구 주제가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참여자의 안전감 형성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여러 차례 메일이나 통화, 문자를 주고 받으며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유대감을 갖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에

표 2. 인터뷰 질문 목록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이혼과 재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li> <li>-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 어떤 느낌이었나요?</li> <li>-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 설명 과정이 있었나요?</li> <li>-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통해 반복적으로 들었던 감정은 무엇?</li> <li>-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정과 그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은?</li> </ul>
재혼 가정에서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 가정에서의 삶은 어떠했나요?</li> <li>-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li> <li>- 새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li> <li>- 새로운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li> <li>- 재혼 가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li> </ul>
재혼 가정 자녀로서의 경험이 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li> <li>- 이성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li> <li>-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은?</li> </ul>
자녀 적응에의 영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 가정에서의 적응은 어떠했나요?</li> <li>- 재혼 가정에 적응했다는 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나요?</li> </ul>

대한 소개와 연구 주제 선정 과정과 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나누었으며, 연구 목적과 의의, 연구 결과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것이 생기면 차후 연락할 수 있음을 전하고 동의를 구했다. 면접이 끝나자마자 연구자는 참여자의 특징과 참여자들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 등을 메모하였고, 면접 내용을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전사하였다.

면접하는 동안 참여자의 진술뿐 아니라 감정과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면접을 진행해 나갔다. 또한 면접 내용이 비일관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 재질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연구 질문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면접 자료를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 1998/2003).

**자료 분석 1단계 원 자료화:** 녹음된 면접 내용을 참가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전사하여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 2단계 개념과 및 범주화:** 개방 코딩 과정에서는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문제 혹은 의미라고 여기는 것을 분석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료에서 말하는 의미 단위를 발견하고 요약하여 개념을 도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의미

단위를 하위 범주와 범주화 했다.

**자료 분석 3단계 중심현상의 패러다임 형성:** 축 코딩 과정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작업을 통해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을 인과적 조건, 맥락적,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구성되는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으로 통합하였다.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료 분석 4단계 사례간 유형 및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핵심 범주를 정한 후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패턴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자녀들의 사례를 묶어 그 양상과 특성을 기술하는 사례 간 유형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사례 간 중심 내용의 차이를 발견하고,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이 보여준 개별 사례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 연구 방법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 대한 평가로서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에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구조화된 자유 기술식 질문들과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분석을 마친 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각각의 개념과 범주명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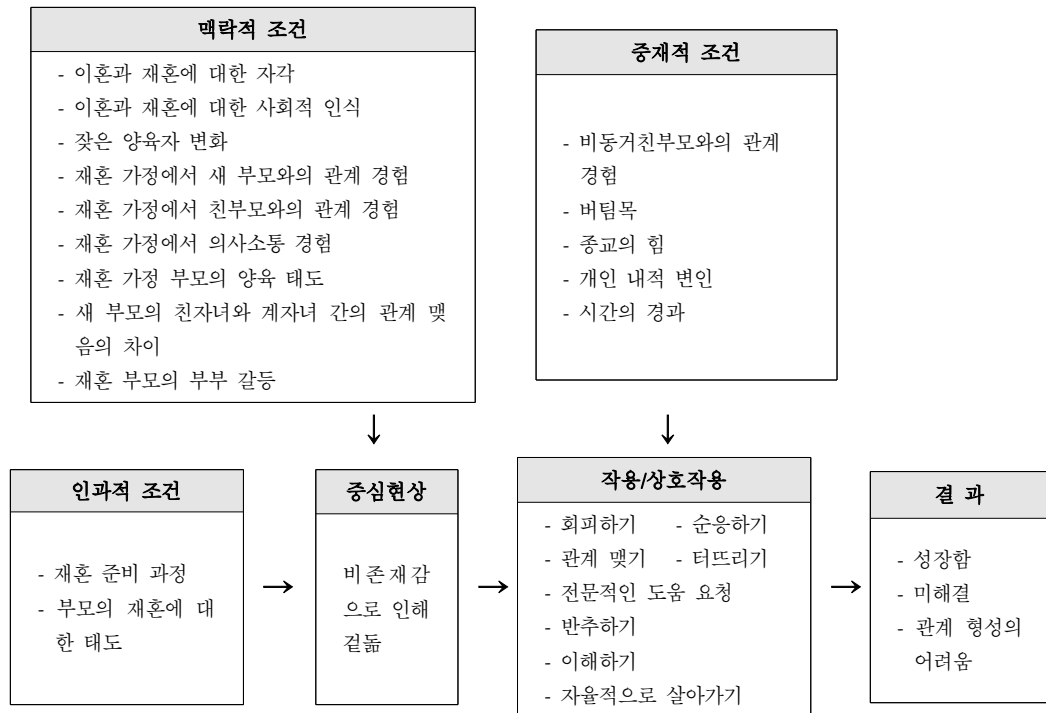


그림 1.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을 거쳤다. 둘째, 적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비슷한 연령대의 동일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3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하게 하였다. 셋째, 일관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분석 과정 단계마다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상담심리전공 교수 1인과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수료생 1인, 석사 수료생 1인, 석사 과정 학생 3인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상담심리전공 교수 2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감수받았다. 넷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다른 동료 연구자가 연구 주제, 목적, 의도 그리고 연구 결과를 거듭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연구자는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와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참여자들의 경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결 과

재혼 가정의 성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이 그들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표 3.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과 관련된 개념화 및 범주화

개념	하위 범주	범주	패러다임
재혼 전 새어머니를 만나 식사함 재혼 전 새아버지와 쇼핑함	재혼 전 새 부모와 관계 맺음	재혼 준비 과정	인과적 조건
부모에게 재혼에 대해 설명 들음 부모가 재혼에 대해 자녀 의사 물음	재혼에 대한 설명		
부모의 재혼을 찬성함, 부모의 재혼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 부모를 위해 재혼을 수용함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임	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	
아버지 재혼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새 부모에 대한 정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했음	부모의 재혼을 불가항력이라 인식함		
외톨이로 생활함, 소외감 느낌	외로움		
의붓동생에게 질투 느낌, 의붓동생이 미움	의붓동생에 대한 질투		
비동거친부모가 자신을 차갑게 대함 동거친부모가 결정적인 순간 내 편이 안 되어 줌	거부당함		
계모와 마찰이 가장 힘들었음 재혼 가정이 지옥 같아 벗어나고 싶음	갈등	비존재감으로 인해 고통	중심 현상
어머니라고 부르기 싫음 새아버지 호칭 문제로 어머니가 화냄	새 부모 호칭의 어려움		
새어머니 눈치 봄, 재혼가정 자녀로서 타인 눈치 봄	눈치 봄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 부인함 재혼 가정에 내 편이 없는 느낌	소외됨		
새아버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지 않음 재혼 가정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음	이혼과 재혼에 대해 숨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	
부모의 이혼/재혼이 흠이라 생각, 결혼 시 이혼/ 재혼 가정인지 상대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	이혼과 재혼에 대한 생각		
이혼/재혼 가정은 온전치 못한 가정이라는 편견 이혼/재혼 가정 자녀를 불쌍히 여김	-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부모가 키워 줌, 여러 양육자를 거침	양육자 변화 경험		
어린 시절부터 돌봄 받지 못함 친부모가 돌보지 않아 친척들이 돌봄	양육자에 의해 방치됨	찾은 양육자 변화	
새 부모와 표면적인 관계 새 부모와 어색한 관계	거리감과 어색함		맥락적 조건
새 부모와 비동거 친부모 사이에 충성심 갈등 새 부모의 오해로 갈등 생김	갈등함		
새어머니께 잘하러 함 새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함	새 부모에게 충성	재혼 가정에서 새 부모와의 관계 경험	
새 부모를 없는 셈 치고 거리 둠 새 부모가 없다고 말함	새 부모 존재를 부정함		
새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줌 새아버지와 관계 편하고 좋음	새 부모와 긍정적 관계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친부모를 새 부모에게 빼앗긴 느낌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기분	허전함		
의붓동생 출생 후 친부모와 더 연락 안함 재혼 후 친부모와 거리감 느낌	거리감		
재혼 후 변한 아버지에게 화남 새아버지와 사는 어머니가 미움	원망스러움	재혼 가정에서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친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려 함 친어머니에 대한 애착 심했음	밀착됨		
친자녀인 자신을 더 차갑게 대함 친부모가 새 부모에게 잘함	태도 변화		
재혼 후 행복해하는 친부모에 대해 억울하고 부러운 마음 새 부모를 비동거 친부모보다 잘 대하는 것 싫음	질투심		
부모님이 다시 함께 살 것이라 생각	재결합의 환상		
일방적 의사소통, 우회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부재	소통의 어려움		
비동거친부모 얘기 금기시 됨 비동거친부모 못 만나게 함	암묵적 비밀	재혼 가정에서 의사소통 경험	맥락적 조건
새아버지에게 소통하는 법 배움 새어머니와 대화하며 많은 시간 보냄	소통이 잘됨		
새 부모가 자신의 양육 방식 강요함 친부모가 자신의 방식 강요함	일방적		
친부모가 새 부모와 자녀 사이를 중재 새 부모가 친부모와 자녀 사이를 중재	중재함	재혼 가정 부모의 양육 태도	
새 부모와 친부모의 양육 방식 차이로 혼란스러움 새 부모는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 같음	양육 방식의 차이		
새 부모가 계자녀인 자신을 더 혼냄 새 부모가 친자녀 출생 후 친자녀를 더 예뻐함	-	새 부모의 친자녀와 계자녀 간의 관계 맺음의 차이	
재혼 전과 같은 문제로 재혼 부모의 갈등 있음 비동거 친부모에게 하던 행동 새 부모에게 똑같이 해서 갈등 생김	재혼 전 같은 갈등이 반복됨	재혼 부모의 부부 갈등	
비동거친부모와 달리 새 부모가 폭력을 행사함 친부모의 의도로 많이 싸움	새로운 갈등이 생김		
비동거 친부모 만나서 반갑고 안심됨 비동거 친부모가 잘 지내는 것이 안심됨	비동거 친부모 소식에 안심됨		
친아버지를 그리워함 친어머니가 보고 싶음	비동거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친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음 친어머니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음	거리감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중재적 조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생김 아버지에게 실망하여 원망 생김	원망스러움		
어머니를 원망했으나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에게 대해 연민의 감정으로 변화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감정 변화		

친척들이 아버지에게 대해 나쁘게 말함 동거친부모가 비동거친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함	비동거 친부모에 대해 나쁘게 들음		
친부모, 새 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친구	버림목 대상	버림목	
경청해 주는 사람 없음, 주변에 믿을 사람 없음	버림목의 부재		
종교가 마음에 안정감 줌 신앙 공동체 통해 상처 위로받음	종교가 도움 됨	종교의 힘	
신앙 공동체에서 배척받은 느낌 종교가 부정적 영향 미침	종교가 도움 되지 않음		중재적 조건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식,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인식 수용적인 사람으로 인식	긍정적 자기개념		
자신의 경험이 도움 될 것이라 여김 감사한 것 많이 생각하려 함	긍정적 사고	개인 내적 변인	
냉소적인 사람으로 인식,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식	부정적 자기개념		
부정적 사고로 부정적 성격이 형성됨 부정적 사고로 부정적 인식 생김	부정적 사고		
	-	시간의 경과	
새아버지와 거리 두고 지냄 새어머니와 피해 가며 생활함	거리 두기	회피하기	
부정적인 감정 표현 안 함, 스트레스 억압하고 참음	감정 억압		
공부에 몰두함, 친구 관계에 집착함	벗어나기	순응하기	
순응하며 억눌러 지냄, 반항하지 않음			
새 부모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림, 비동거친부모에게 못 해본 말 해봄, 친구에게 자신에 대해 말함	마음 열어보기		
친부모 생각해서 새 부모 받아들이려함 타인 입장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하려함	상대방 입장에 서보기	관계 맺기	
새 부모와 친하게 지내려 노력 새 부모에게 먼저 대화 시도	다가가기		작용/ 상호 작용
눌러왔던 감정 터져 나옴 분노로 밖으로 돌며 방황함	-	터뜨리기	
상담 치료 받음	-	전문적인 도움 요청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함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 가짐	-	반추하기	
비동거 친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생김 동거친부모를 이해하는 마음 생김	친부모 이해하기	이해하기	
새 부모 입장이 이해됨, 새 부모를 받아들임	새 부모 이해하기		
이혼이 이해 됨, 재혼 가정의 일들을 받아들임	상황 이해하기		
스스로 알아서 하려 함 자신의 어려움 해결하려 함	-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재혼 가정이 더 편안함 재혼 가정이 안정적이고 불안함 없음	재혼 가정이 편안해짐		
부모님과 분리되고 자신의 삶을 찾고 있음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대로 사는 것	독립하기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 행복한 가정 꾸리기 위해 조심하게 됨	부모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음	성장함	
새 부모와의 소통경험이 폭 넓은 대인관계에 도움됨 새 부모와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이 친구 관계서도 먼저 말하려 노력함	대인 관계 넓어짐		
시각이 달라져 인식의 변화 가져옴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함	인식의 변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음, 화목한 가정 꾸리고 싶음	희망을 품음		
친부모와 관계 좋지 않음, 새 부모가 싫게 느껴짐, 비동거친부모가 싫음	부모를 수용하지 못함		
재혼 가정 편한지 모름 재혼 가정이 원가족보다 못함	재혼 가정이 편하지 않음		
비동거 친부모 책임져야 할 것 같음 친부모 위한 삶을 살 것	부모화	미해결	결과
힘든 것 얘기 못함, 부정적 감정 표현 못함	표현의 어려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사는 기분 존재에 대한 의문 들	정체감 혼란		
상대가 떠날까봐 두려움 어린 시절의 불안, 두려움이 현재에도 영향 끼침	두려움		
미래에 대해 의욕 없음, 세상에 대한 불신	비관적인 태도		
타인 쉽게 신뢰하지 않음, 마음을 못 열게 됨 관계 믿음 안 가고 쉽게 깨짐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누구를 만나든 어차피 헤어질 것이라 생각됨 남녀 사이는 영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관계 지속의 어려움		
타인 관계 시 눈치 많이 보고 자기 탓함 친하게 지내지만 진짜 모습 감춤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관계 형성의 어려움	
친구 관계에 집착하고 질투함, 상대에게 의존함	관계에 의존함		
이성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함 친아버지 같은 남자 피하게 됨	이성 관계의 어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해 부정적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		

지를 이해하기 위해 적응과 관련있는 개념 및 범주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재혼 가정의 성인 자녀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180개의 개념으

로부터 77개의 하위범주와 2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분석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원인이 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Strauss & Corbin, 1998/2003). 본 연구에서는 ‘재혼 준비 과정’과 ‘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가 후에 제시될 중심현상인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재혼 준비 과정에서 미리 새 부모와 관계를 맺거나 재혼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 부모의 재혼을 좀 더 수월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혼 준비 과정에서 동거친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재혼을 강행한 경우 참여자들은 부모의 재혼을 수용하기 어려워하였다. 이를 ‘재혼 준비 과정’, ‘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의 범주로 명명하였다. ‘재혼 준비 과정’ 범주의 속성은 ‘설명 형태’이다. 설명의 차원은 있다, 없다고 구분되며, 정도는 강함, 약함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 범주는 본질의 속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차원은 부모의 재혼을 수용하기 어려운 태도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차원은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났다. 재혼 준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동거친부모가 새부모에 대해 소개하거나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의 재혼을 수월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엄마가 재혼하기 전부터 새아빠랑 함께 밥도 자주 먹고 쇼핑도 자주 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9: 재혼 준비 과정>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싫었던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빠가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잘못 밟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에게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빠가 아는 동생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선 집에도 몇 번 왔다 갔다하시고는 그러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사시는 그런 경우거든요.” <참여자10: 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

**중심현상: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Strauss & Corbin, 1998/2003),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재혼 가정 초기 새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거리감과 낯섬을 느끼며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재혼 가정 초기 재혼 부모가 친밀한 모습을 보일 때 외로움을 느끼고 거부당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것과 새 부모에 대한 호칭 문제를 어려워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재혼 가정에 적응하기 전 재혼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소외를 경험하며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게 되었다. 이를 ‘외로움’, ‘의붓동생에 대한 질투’, ‘거부당함’, ‘갈등’, ‘새 부모 호칭의 어려움’, ‘눈치 봄’, ‘소외됨’으로 하위 범주화하였고,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으로 범주화하였다.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의 속성은 ‘정도’와 ‘연속성’으로 나타났다. 즉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의 정도가 강한 참여자는 재혼 가정에서 심하게 곁도는 상태이고 약한 차원은 그 정도가 약한 상태를 내포한다. 연속성의 속성에는 ‘지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차

원'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것은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도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이고 일시적인 차원은 곁뜸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을 의미한다.

“진짜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도 말없이 먹고 같이 뭐 TV 보고 있어도 TV 보고 있을 때 제가 나오면 아줌마가 들어가 버리고, 아줌마 계속 저 피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 안에만 계속 있고 두 분이 같이 있는 거.. 저도 보기 싫으니까 계속 방 안에만, 주말엔 거의 방에서만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략) 그땐 진짜 뭔가 외로운, 많이 외로웠어요.” <참여자11: 외로움>

“동생 없어져버렸으면 좋겠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막 그.. 너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되냐? 이런 기분? 너만 없어지면은, 그니까 또 없으면은 새엄마도 없고 동생도 없으면 그래도 좀 평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3: 의붓동생에 대한 질투>

“집에만 오면 일단 일을 해야 되고. 시다 일이라고 하죠. 시다 일 해야 되고 싸울 때마다 내가 말려야 되지.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나한테 지옥 같았어요. 아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참여자9: 갈등>

“분명히 둘이 이혼하면 또 내 탓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엄청 많이 들어요. 저도 눈치가 보여요 새엄마 눈치가. 혹시나 아빠를 싫어하게 될까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어린애들은 사실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참여자15: 눈치 봄>

“제 동생이 생기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중략) 동생이 있고, 동생이 클 때부터도 관심이 다 동생한테 가니까.. 저는 그때까지 외아들이었는데, 그나마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그나마 그것만 받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줄어드니까 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참여자8: 소외됨>

####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이다(Strauss & Corbin, 1998/2003). 본 연구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찾은 양육자 변화’, ‘재혼 가정에서 새 부모와의 관계 경험’, ‘재혼 가정에서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재혼 가정에서 의사소통 경험’, ‘재혼 가정 부모의 양육 태도’, ‘새 부모의 친자녀와 계자녀 간의 관계 맺음의 차이’, ‘재혼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심현상인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맥락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과 재혼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 여부가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양육자 변화 정도와 재혼 가정에서 재혼 부모와의 관계경험의 결과 새 부모의 태도, 재혼 부모의 부부관계가 참여자들이 재혼 가정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인식은 ‘본질’의 속성에 따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

적인 것'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흡으로 여겨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잦은 양육자 변화의 속성은 '정도'와 '지속성'인데 양육자가 자주 지속적으로 바뀐 참여자들은 안정 애착 형성에 방해를 받았으며, 후에 인간 관계와 재혼 가정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다. 재혼 가정에서 새 부모,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의 속성은 '본질'과 '연속성'으로 관계 경험이 긍정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재혼 가정 적응에 도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경험의 속성은 '유형'으로 '개방적', '폐쇄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재혼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양육 형태'의 속성에 따라 '권위주의적 양육형태'와 '방임적 양육형태'로 나타났고, 새 부모의 친자녀와 계자녀간의 관계 맺음의 차이는 '정도'와 '연속성'의 속성을 보인다. 새 부모가 친자녀와 계자녀 간의 관계 맺음의 차이가 심하고 지속적인 경우는 재혼 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방해요인이 되었다. 재혼 부모의 부부갈등은 '정도'와 '연속성'의 속성을 보이며, 재혼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하면서 지속적인 경우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다.

“제가 남들과 달라지잖아요. 원래 애들.. 또래라는 게 남들과 다르면 배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 받잖아요. 애들은 또 엄마, 아빠한테 말할텐데, “애 아빠 없데.” 이러면은, 아 그러면은.. 안 좋게 볼 것 아니에요. 싫죠 그게.. 남들과 달라 보이는 게..” <참여자8: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즘에는 워낙 이혼 가정이 많지만은 지금도 온전치 못한 가정이라는.. (중략) 000이 얘기하는 걸 들어도 건강한 가정서 자란 이성을 만나야 된다 이런 게 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나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이고 그럼 아예 배제되어야 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참여자9: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집이 안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를 봐주셨던 게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친척들, 이모, 막 그렇게 막 계속 받다 보니까 뭔가.. 좀 내 존재에 대해서 약간 좀.. 되게 사랑받고, 안정적으로 뭔가 되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5: 잦은 양육자 변화>

“지금 아빠는 뭘 해도 항상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한테 못 들었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친부모님한테 못 들었던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랑한다는 말, 넌 내 가슴으로 낳은 딸이고 내 자식이다. 되게 쑥스러운데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아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여자4: 재혼 가정에서 새 부모와의 관계 경험>

“아빠가 재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동생 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진 모습이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게. 아빠가 만약에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이혼이 안 됐을 텐데. 엄마 한텐 그렇게 했다는게 기분 나쁜 거예요.” <참여자12: 재혼 가정에서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그런 부분.. 부족하고 막.. 계속 억압하고, 언어적으로 되게.. 뭘 하겠다고 하면은 계속.. 부정적인 그런 말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략) 간섭도 많이 하고, 뭐 엄마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게 그거를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참여자5: 재혼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경험-소통의 어려움>

“되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미워하지? 하라는 거 다 하고 뭐 사와 하면은 ‘아 네~’ 하고 다 사왔거든요. (중략) 근데 왜 나를 미워할까? 그냥 동생이 되고 싶었어요.” <참여자3: 새 부모의 친자녀와 계자녀 간의 관계 맺음의 차이>

“분가하고 나서도 되게 저는 왜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방에서도 또 싸우시니까 차라리 이혼하고 우리 집에서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할머니한테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여자1: 재혼 부모의 부부 갈등>

맥락적 조건에 속한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인식, 잦은 양육자 변화, 재혼가정에서 새 부모와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재혼 가정에서 의사소통 경험, 재혼 가정 부모의 양육 태도, 새 부모의 친자녀와 계자녀 간의 관계 맺음의 차이, 재혼 부모의 부부 갈등

은 속성과 차원에 따라 자녀들의 적응에 보호요인이 되거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정도의 지속성이 긍정적 차원으로 나타난 경우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나 부정적 차원이 지속되거나 긍정적 차원이 일시적인 경우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조절하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 맥락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2003). 본 연구에서는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버팀목’, ‘종교의 힘’, ‘개인 내적 변인’, ‘시간의 경과’가 중심현상인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핍’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심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써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정도’의 속성에 따라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긍정적인 것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참여자들이 재혼 가정 적응과 재혼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부정적일수록 재혼 가정에서 새 부모와 관계가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버팀목은 ‘버팀목 대상 수’의 속성으로 많은 경우부터 적은 경우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버팀목 대상의 수가 많을수록 참여자들이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버팀목 수가 적을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다. 종교의 힘은 ‘정도’의 속성에 따라 강함에서 약함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종교에서 강하게 힘과 위로를 얻을수록 다른 버



팀목이 부재하더라고 현재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개인 내적 변인은 ‘정도’의 속성에 따라 많음에서 적음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자기개념과 사고가 많을수록 참여자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시간의 경과는 ‘시간 경과’ 속성에 따라 부모 재혼 후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와 짧게 경과한 경우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아빠라고 잘 안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손에 꼽아요 제 기억에.. (중략) 10살 뒤.. 20살 때는 만나기 싫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났고, 21살 이렇게 3~4번 정도 만났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그리고 별로 솔직히 저는 만나고 싶지 않고.. 별로 좋은 기억은 없거든요.” <참여자8: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어릴 때.. 주일학교 막 가장아요. 그러면은 그걸 맡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그래서 되게 따뜻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중략) 아 따뜻하구나.. 되게 내가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참여자5: 버팀목>

“그때도 성당을 다녔어요. 가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 나한테. 그리고 저는 되게 유별난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는데 그때 엄마도 어루만지지 못하고 아빠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세상도 어루만져 주지 못한 상처받은 내 마음을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

기 있으면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종교의 힘>

“처음엔 혼란스러운 감정이 컸고, 울기도 많이 울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러다 지날수록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챙겨야겠다,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만 하거나 하면 안 되겠다, 나를 내가 가장 챙기고 나를 더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여자10: 개인 내적 변인>

중재적 조건의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경험, 버팀목, 종교의 힘, 개인 내적 변인이 그것들의 속성과 차원에 의해 자녀들의 재혼가정 적응에 보호요인 또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도의 속성이 긍정적이거나 수가 많을수록 자녀들의 적응에 보호요인이 되었다. 반면 정도의 속성이 부정적이거나 보호 요인인 대상의 수가 적은 것이 자녀들의 적응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혼 가정에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나 문제, 쟁점을 다루는 의도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2003).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비존재감으로 인해 고통’ 현상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회피하기’, ‘순응하기’, ‘관계 맺기’, ‘터뜨리기’, ‘전문적인 도움 요청’, ‘반추하기’, ‘이해하기’,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사용하였다.

회피하기 전략은 ‘연속성’의 속성에 따라 참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전략을 사용하

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차원으로 구별되었다. ‘빈도’의 속성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전략을 자주 하거나 드물게 하는 차원으로 구별되었다. 순응하기 전략은 ‘빈도’와 ‘연속성’의 속성에 따라 얼마나 자주 혹은 드물게, 지속적 혹은 일시적으로 순응하기 전략을 사용했느냐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관계 맺기 전략은 ‘빈도’와 ‘연속성’의 차원으로 관계 맺기 위해 자주 혹은 드물게 노력하였느냐와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터뜨리기 전략은 ‘빈도’의 속성으로 터뜨리기를 자주했는지 드물게 했는지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도움 요청 전략은 ‘빈도’의 속성으로 도움 요청을 자주했는지부터 드물게 했는지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반추하기 전략은 ‘빈도’의 속성으로 자신을 얼마나 자주 자신을 반추했는지부터 드물게 했는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이해하기 전략은 ‘정도’의 속성으로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는 차원과 적게 이해했느냐 차원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전략은 ‘빈도’의 속성으로 얼마나 자주 혹은 드물게 자율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가 차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재혼 가정 초기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들던 것에서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버팀목, 종교의 힘, 개인 내적 변인의 개입과 적응하기 위해 회피하기, 순응하기, 관계맺기, 터뜨리기, 전문적인 도움 요청, 반추하기, 이해하기,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전략을 사용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적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 그 아줌마랑 트러블 없으려고 말을 안 하고 뭐 미워 보이면 그냥 웬만해서 웃으려고 하고 아무나 있으면 일부

러 그날 기분 나빴더라도 웃으면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적응하려고 화내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짜증난 모습도 거의 안 보여주고..” <참여자11: 회피하기>

“아무도 물꼬를 안 터는데 제 입장에서는 왜 기다리기만 하지? 새엄마는? 내가 뭘 자꾸,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씩 먼저 말도 걸고 하기도 했어요.” <참여자15: 관계 맺기>

“근데 우울증 앓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동안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내 안에 꺾꺾 눌러왔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터지는데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정말 그냥 엄마랑 아빠랑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축적됐잖아요. 그게 터지니까 감당하기 벅차고 죽고 싶고 모든 게 의욕이 없고 무섭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견잡을 수 없었죠.” <참여자2: 터뜨리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 갈등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폭력에 대한 그런 걸 되게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런 거에 계속 노출되어 살아와서 그런지. 제가 처음에 학교에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고쳐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참여자1: 전문적인 도움 요청>

“인식의 변화는 어.. (중략)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를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녀가 뭔가..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시각이 더... 더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중략) 탐색하는 시간들.. 그 시기에 시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반추하기>

“처음에는 되게 싫었는데 이유 없이 싫어한 게 아니고 살면서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때는 몰랐었고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이구나. 나도 이제 특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점점...” <참여자12: 이해하기>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인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뚝’에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개입되어서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8/2003). 본 연구의 면접 결과 참여자들은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뚝’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해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이 ‘성장함’, ‘미해결’, ‘관계 형성의 어려움’의 결과로 나타났다.

‘성장함’의 참여자들은 재혼가정 초기 재혼한 부모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 재혼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재혼한 부모와 비동거 친부모를 이해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재혼 가정 자녀로서의 현실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재혼가정이 더 편하다고 느끼며 긍정적 감정과 언어를 표현하거나 재혼 부모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가며 취업이나 진학을 통해 독립적이며 발전적인 삶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인식의 변화를 통해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들은 부모의 삶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전과는 다른 성장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였다.

‘미해결’의 참여자들은 재혼 한 부모를 수용하지 못해 재혼 가정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이혼한 부모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마음의 부모화된 자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재혼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지않고, 새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의붓동생과의 관계 역시 소원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친부모의 이혼에 대해 미련과 원망이 많으며 미해결된 감정으로 인해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였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며, 두려운 감정이 많고, 자신과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계 형성의 어려움’의 참여자들은 부모의 재혼을 경험 한 후 대인 관계 시 신뢰감 형성이 어렵고, 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며, 친밀감 형성에 서툰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관계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특히 이성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참여자들은 부모의 삶이 불행했다고 인식될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혼 후가 되게 긍정적인 편이라서 그 어린 시절에 좀 저 자신이 느끼기에는 되게 부정적이고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 못

하고 되게 비판적인 말 쓰고 그런거 태도.. 그런 편이었는데, 물론 다른 것들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래도 엄마랑 동생이랑 아빠랑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가정.. 안에서, 그 이후로 이렇게 안정적이고 보호받고,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13: 성장함-재혼가정이 편안함>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했다. (중략)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셨더라 하더라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이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면 내 인생을 스스로 좌절시키는 것이며, 내가 그 아픔을 극복하면 내 인생도 새로 다시 탄탄히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참여자10: 성장함-독립하기>

“재혼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큰 소리가 오고갔고 물건이 던져지고 부서졌으며 새아빠가 화가 났을 때는 집에 있는 칼을 숨기는 게 우리 자매들의 몫이었다. 재혼해서 같이 살게 된 2년 정도 동안 새아빠의 불같은 성질과 폭력성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힘들었다.” <참여자9: 미해결-재혼가정이 편하지 않음>

“청소년기부터 왜 사는지 삶의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기간을 고민해와도 제가 왜 사는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사

는 기분입니다.” <참여자8: 미해결-정체감 혼란>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는 아예 그냥 모든 거를 다 감췄어요. 다 감추고 애들 앞에서 친하게는 지내고는 하는데 제 진짜 모습을 감추고 (중략) 저를 포장하고 조금 이런 거 엄청 과대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연락하는 애들 그래서 한 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참여자6: 관계형성의 어려움-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연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문제점을 찾았어요. 애는 뭘까? 애는 뭐로 헤어지게 될까? 끝이 항상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끝은 행복한 게 아니라 애는 나랑 뭐로 헤어질까? (중략) 애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는 뭐가 문제일까? 술을 먹나? 여자를 좋아하나? 돈이 없나? 집에 돈은 좀 있나? 그래도 뭐로 나를 힘들게 할까?” <참여자7: 관계형성의 어려움-이성관계의 어려움>

####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페리다임 모형에서의 작용/상호작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참여자들의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다시 말해서 과정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나 맥락이 변화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의 인과 요인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2003).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적응해가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부정, 타협, 시도, 수용 단계로 나타났다. 재혼 가정 적응 과정의 4단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일부 순환 형태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이 단계별로 순차적인 계단식 성장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계별 중복이 가능하며 역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부정단계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재혼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 재혼 초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재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상실감, 분노, 불안감, 심리적 고통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재혼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부모의 재혼 소식은 참여자들에게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하기 전에 또 다른 큰 혼란과 상처가 되어 재혼 가정 초기 자신의 감정, 가족 관계, 상황 등을 회피하며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타협단계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초기 부정 단계를 거친 후 자신이 처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거나, 처음부터 재혼 가정에 순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재혼 가정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재혼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부모 이혼 후의 삶이 가혹했던 경우에는 재혼 가정을 더 좋게 여기며 순응하였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재혼 가정에서 반항하지 않고, 재혼 부모와 환경에 순응하려 하였다.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은 미해결 상태일지라도 자신으로 인

해 재혼 가정에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 시도단계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재혼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들은 타협 단계를 거친 후 수동적 순응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해 보았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해보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을 터뜨려보거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려 노력하였다. 이 가운데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관계 맺기’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고, 상대방 입장에 서보며, 상대방에게 다가감으로써 관계 맺기 위해 노력하였다.

#### 수용단계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에게 부모의 이혼과 재혼은 당사자인 부모 못지않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한쪽 부모를 떠나보낸 상실감, 가족이 해체된 좌절감과 수치감을 느끼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점점 수용해가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비동거 친부모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꼈으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그들은 성장해가며 비동거 친부모에 대해 원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갔으며, 이혼과 재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친부모를 이해하였다. 비동거 친부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부모임에는 변함없고, 성인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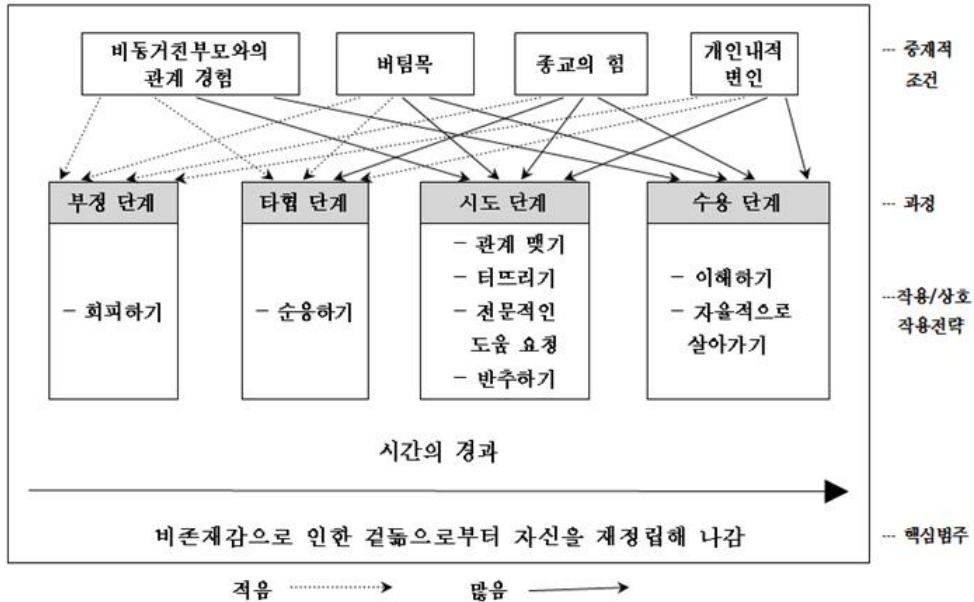


그림 2.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

다. 비동거 친부모와 소통하며 애정을 확인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눌 때 성인 자녀들은 재혼 가정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비동거 친부모와 동거친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새부모와의 관계도 긍정적이며 재혼 가정 자녀로서의 삶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재혼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자녀들의 관점에서 재혼 가정에서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비존재감으로 인해 고통’으로 나타났다.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 ‘비존재감으로 인해 고통’은 ‘부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같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족 문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인식, 양육자 변화 정도, 재혼 부모와의 관계 경험의 질이 비존재감으로 인해 고통되는 것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과정은 ‘비존재감으로 인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재정립해 나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은 적절하고 유익하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Moore, B. E., & Fine, 1994/2002),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순응과정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화과정

으로 나뉜다(권석만, 2005). 다수의 자녀들은 재혼 가정 초기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며 부적응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점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희망을 품고 부모로부터 독립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순응 과정을 거치거나 부모와 환경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동화 과정을 통해 적응해 나갔다. 그들은 부정, 타협, 시도, 수용 단계의 적응 과정을 거치며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돌던 환경에서 자신을 재정립해 나가며 적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의 보호 요인으로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버팀목, 종교의 힘, 개인 내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들은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되었다.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은 비동거 친부모에 대해 부정적이던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될수록 재혼 가정과 재혼 부모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혼 가정에서 성장한 딸이 비동거 친부모인 아버지와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이성 관계와 결혼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팀목 대상 또한 주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버팀목 대상으로는 주로 재혼 가족, 친구, 이성 친구, 친인척, 교회 선생님과의 관계였다. 특히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버팀목 대상은 자녀들에게 중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녀들이 재혼 가정에서 비존재감으로 인해 곁돌 때 주변에 믿고 의지할 버팀목이 부재하거나 비동거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 종교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자녀들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종교를 통해 위로받고자 했는데, 신앙 공동체를 통해 따뜻하고 긍정적인 돌봄을 많이 받을수록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호 요인으로는 개인 내적 변인이 작용하였는데 긍정적 자기개념과 사고가 많을수록 자녀들의 적응에 도움 되었다.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은 '내 가족 중심'의 한국의 가족 문화와 '재혼 가정 자녀는 문제 가정의 자녀'라는 편견이 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시간의 경과와 보호 요인인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경험, 버팀목, 종교의 힘, 개인 내적 변인의 개입을 통해 주어진 삶을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재혼 준비 과정에서의 소외,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과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 사회적 편견, 잦은 양육자 변화는 자녀의 적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험 요인들은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적응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비동거 친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고, 버팀목 대상이 많고, 종교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경험과 긍정적 자기개념과 사고가 많을수록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혼 부모의 부부 관계의 질이 좋고, 재혼 부모가 합의하여 일관된 양육 태도를 보이며, 새 부모가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녀가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혼 초기 새 부모가 계자녀를 직접 훈육하기보다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 훈육하는 것이 자녀의 적응에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녀들

의 관점에서 재혼 가정에서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최근 재혼의 증가와 더불어 재이혼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재혼 가정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가 미진했고 재혼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자녀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을 심층 면접하여 ‘자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응 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재혼 가족 자녀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에서 몇 개의 변인을 중심으로 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에 대한 양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들의 회고적 진술을 통해 총체적인 적응 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밝혀냈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개인 발달에 따라 자녀들이 재혼 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과 적응에 미치는 주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탐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셋째, 최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혼 가정에서 성장한 성인 자녀들이 경험한 실제적인 경험을 담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재혼을 계획하는 가족과 재혼 부부에게 자녀의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가, 가족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정책 책임자들에게 재혼 가정

자녀에 대한 개입 방안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넷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의 4단계와 개입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재혼 가정의 친부모와 새 부모가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재혼 부모의 부부관계 질이 좋고, 일관된 양육태도를 보이며, 새 부모가 계자녀와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 혼육에 개입하는 것이 자녀의 적응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재혼 가정 자녀들을 상담할 때 자녀들의 적응 단계를 확인하여 적응에 필요한 보호 요인을 촉진시키거나 방해 요인을 제거시킴으로써 재혼 가정 자녀들이 적응하는데 도움되는 임상적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비동거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혼 가정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나 감정이 회복되면 재혼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비동거 친부모가 아버지인 경우 재혼 가정에 사는 딸과의 관계가 부정적일 때 이성관계와 결혼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이 비동거 친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재혼 가정 적응과 이성 관계와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적응과 관련된 재혼 가정 자녀 상담 시 비동거 친부모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재혼 가정 성인 자녀들의 적응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참여 대상자는 현재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 전체 재혼 가정 성인 자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좀 더 확실한 대표성을 가지려면 본 연구를 통해 잠정적으로 도출된 가설들을 검증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남녀 성비에서 균형 있는 비율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는 목적적 표집의 한계성으로 재혼 가정 성인 자녀라는 특정 상황의 참여자를 구하고, 성비의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성비의 균형을 확보하여 적응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회고적 자료(retrospective data)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회고적 자료는 참여자가 재혼 가정에서 성장하며 시간의 경과를 통해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경험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응 과정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 재혼 부모의 입장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재혼 가정 부모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의 적응을 살펴 보는데 있어 부모 재혼 시 자녀 연령을 제한하지 못했다.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의 재혼

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적 표집의 한계로 인해 동일 조건의 참여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재혼 시 자녀의 연령대를 제한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혼 가정 성인 자녀의 적응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들이 이후 분리 독립한 후의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서 이들의 경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들에게 중요한 보호 요인이 지속적으로 도움될 때와 도움 되지 않을 때 이들이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 재혼 가정 성인 자녀에 대한 연구였기에 국내 다문화 재혼 가정 자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근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이혼과 재혼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미 다문화 가정 이혼 부부의 10%가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통계청, 2011).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재혼 가정의 자녀 적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석만 (2005). 현대 이상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고은영, 서영석 (2012). 재혼 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족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심리치료, 24(2), 397-419.
- 김미옥, 천성문 (2014). 재혼가족의 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26(4), 903-928.
- 김연옥 (2004). 재혼 가정의 가족기능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215-235.
- 김영신 (2009). 재혼가족의 청소년이 지각한 친부모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새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6). 한국 가족 문화의 재고: 친밀성의 부재와 허약한 가족관계. *보건 복지 포럼*, 115, 20-34.
- 김효순 (2006). 재혼 가족 청소년 자녀의 역할 긴장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2), 187-213.
- 김효순 (2007). 재혼 가족 청소년 자녀의 적응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4), 65-86.
- 김효순, 엄명용 (2007).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75-102.
- 김효순, 하춘광 (2011).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 가족의 새 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3(1), 137-168.
- 백은정, 유영권 (2004).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25-842.
-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107, 204-224.
- 손병덕 (2009). 이혼, 재혼 가정 아동의 공격.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4(4), 113-136.
- 송순 (2004). 청소년 성별과 재혼 가족의 동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재혼 가정 적응연구. *한국 생활 과학회 학술대회*, 2, 132-133.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08).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윤주애 (2002). 재혼 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춘희 (2006). 재혼 가족 청소년의 친부모 관계와 새 부모 관계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3(3), 79-102.
- 장승심 (2012).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41, 139-177.
- 지승희, 오혜영, 이현숙 (2012). 사이버상담 사례에 나타난 재혼 가족 여자 청소년의 어려움. *청소년상담연구*, 20(1), 107-126.
- 최규련 (2011). *가족관계론*. 서울: 공동체.
- 통계청 (2011). 2010년 혼인 이혼 통계.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에서 2014, 2, 17 자료 얻음.
- 통계청 (2013). 2013년 혼인 이혼 통계.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에서 2014, 2, 23 자료 얻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5). 한국의 이혼율 연구.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에서 2015, 8, 8 자료 얻음.
- Anderson, E. R., & Greene, S. M. (2013). Beyond divorce: Research on children in repartnered and remarried families. *Family Court Review*, 51(1), 119-130.
- Cartwright, C., & Seymour, F. (2002). Young adults' perceptions of parents' responses in stepfamilies: What hurts? What help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7(3/4), 123-141.
- Coleman, M., Fine, M. A., Ganong, L. H., Downs, K. M., & Pauk, N. (2001). When you're not the brady bunch: Identifying perceived conflicts and resolution strategies in stepfamilies. *Personal Relationships*, 8, 55-73.

- Coleman, M., Ganong, L., & Fine, M. (2000).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88-1307.
- Dunn, J., O'Connor, T. G., & Cheng, H. (2005). Children's responses to conflict between their different parents: Mothers, stepfathers, nonresidential fathers, and nonresidential stepfath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2), 223-234.
- Gonzales, J. (2009). Pre-family counselling with blend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0(2), 108-123.
- Gosselin, J., & David, H. (2007). Risk and resilience factors linked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ep-parents and biological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48(1/2), 29-53.
- Guba, E., & Lincoln, Y. (1981).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CA: Sage Publications.
- Mahoney, M. M. (2006). Stepparents as third parties in relation to their stepchildren. *Family Law Quarterly*, 40(1), 81-108.
- Moore, B. E., & Fine, B. D. (2002). 정신분석용 어사전. *{Psychoanalytic terms & concepts}*.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94에 출판).
- Nicholson, J. M., Phillips, M. E., Peterson, C. C., & Battistutta, D. (2008).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yles of Biological Parents and Stepparents and the Adjustment of Young Adult Step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6(3/4), 57-76.
- Portnoy, S. M. (2006). The Effects of Divorce on Adults, part 1. *American Journal of Family Law*, 20(2), 73-79.
- Strauss, A., & Corbin, J. (2003). 근거이론의 단계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2nd ed.)}*.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98에 출판).

원 고 접 수 일 : 2015. 4. 6  
수정원고접수일 : 2015. 7. 11  
게 재 결 정 일 : 2015. 8. 5

## Adjustment Process of Adult Children in Remarried Couples' Family

**Bok-Soo Byun**

**Seung-Min Park**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adjustment which adult children of remarried couples experienced. In doing so,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f 15 adult children aged from 20 to 30 years old who have lived in a stepfamily more than a year. Their responses was analyze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proposed by Strauss and Corbin(1998/2003). Results showed 27 categories and 77 sub-categories from 180 concepts. Consequently, The protective factors facilitating adult children's adjustment in remarried couples' family were 'relationship experience with the non-cohabiting biological parent,' 'external support,' 'having a religion,' and 'individual inner variables as a mediator.' Additionally, 'blameful messages and broken relation with the non-cohabiting biological parent,' 'social prejudice,' 'frequent change of breeder,' and 'stepparents' unilateral breeding attitude' were found to hinder adult children from adjusting. Implications for counselling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remarried couples' family, adult children in stepfamily, adjustment process, grounded theory